서구청 어설픈 행정에…주민 고통 부른 주거개선사업

화정2구역 주민동의 미달로 사업지위권 상실한 LH도 250억 손실
LH, 주민 상대로 보상금 반환 소송…주민 상당수는 다른 곳 이주
"보상금 이주비용으로 이미 사용했는데 어떻게 반환하라고…" 답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착오가 지역주민들을 수 년 간 고통으로 내몰고, 사업시행자는 수백억원의 손실을 볼 처지에 놓였다. 특히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맞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와 광주 서구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상실한 LH가 지난 5일 주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등기말소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1월 토지소유주 8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소송'에 대한 대응소송 성격이다. 일부 주민들이 토지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유권을 환원해주는 대신 LH가 이미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적법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관련 사업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의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사업 시행의 전제조건인 전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광주 서구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준 미달을 근거로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 계획도 무효가 됐다. LH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했고, 해당 토지소유에 대한 근거도 없어졌다.

LH 관계자는 "상당한 사업 손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 관련 안내문을 주민에게 발송하는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이 사업과 관련해 토지보상금 200억여원, 철거비용 50억여원 등 250여억원 가량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광주고법 2심 판결 이후 축구장 3개 크기(2만5000㎡) 부지 내 공사는 멈춰선 상태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치려고 추진한 사업이 서구의 어설픈 행정 때문에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LH는 서구가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LH를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소송도 주민 동의를 원활히 받기 위한 '압박 전술'로 이해된다.

주민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 지급받은 보상금을 이주비용으로 이미 사용해 버렸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이미 받은 보상금은 다 사용했는데 어떻게 반환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LH는 "최근 상승한 공시지가 등을 반영한 감정평가로 신규 보상을 검토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주 서구와 LH가 광주서초등학교 인근 화정동 778번지 일원(2만5000㎡)을 정비하고 오는 2020년까지 440가구 규모의 공공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LH가 2014년 10월 효천2지구 분양 이후 광주지역에 4년 만에 공급하는 분양아파트(332가구)여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올 첫 개장 대인예술야시장 '북적' 지난 6일 올해 첫 개장한 광주시 동구 대인예술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각종 먹거리와 수제 공예품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잔소리한다'며 여성 잔혹 살해 징역 17년

모텔에서 50대 여성의 양손과 몸을 묶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이 더럽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훔쳤다"며 "특히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시기, 동기,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 한 모텔에서 SNS로 만난 A(당시 57세)씨를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1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가 방이 어질러진 모습을 보며 '깨끗하게 하고 있지'라고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건만남 가장해 남성 유인 금품 뺏은 10대 남녀 5명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7일 조건만남을 가장해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A(15)군 등 10대 5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1학년 친구 사이인 A군 등 5명(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은 지난 4일 밤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 62만원과 계좌이체로 234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군 일당은 먼저 여학생이 채팅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모텔로 유인한 뒤, 남학생들이 모텔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황하나 "연예인 지인이 권유" 경찰, 마약 수사 연예계 확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되고 있다.

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마약 투약 경위에 대해 "연예인 지인 A씨가 권유해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이날 구속됐다.

경찰은 황씨가 언급한 연예인 A씨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언급한 연예인은 현재까지는 A씨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으로 황씨와 A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다른 연예인 또는 재벌 3세 등 유명인의 이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오늘 민·형사 재판…전두환은 불출석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형사 재판이 8일 광주에서 열린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인 전씨의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변호인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 절차와 쟁점 정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본 것은 관할위반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 측 모두진술,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절차까지만 진행됐다.

기소 10개월 만에 처음 출석한 전씨는 헬기 사격은 허위이며 헬기 사격을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한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씨 측은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이 없었다'며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3회 변론준비기일은 8일 오후 4시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음주운전 차량 주유소 돌진 신속 진화로 대형사고 막아

7일 오전 6시 10분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한 주유소로 하모(23)씨가 운전하던 코란도 차량이 돌진해 주유기 한 대를 들이받은 뒤 주유소 건물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차량 밑부분에 불이 붙었지만 현장에 있었던 주유소 직원이 소화기로 진화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조사결과 하씨는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귀가를 하던 중 곡선 구간에서 운전대를 제대로 꺾지 못하고 갓길에 주차돼 있던 렉스턴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 주유소로 돌진했다. 경찰은 하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후보 도와달라"…유권자에 비아그라 제공 자원봉사자 벌금형

쌍나팔

○…자신이 지지하는 군수후보를 선택해 달라며 주민들에게 비아그라와 아이스크림 등을 선물한 50대가 벌금형.

○…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남의 모 군수 후보를 뽑아달라며 지인 2명에게 비아그라 7알을 건네고, 10여명에게 아이스크림 28개를 선물하는 등 4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는 것.

○…재판부는 "선거일을 앞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극히 경미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8타경 53539	1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10, 304동 17층 1702호 [근화베아채비올레] 122.2885㎡	아파트	413,000,000 413,000,000	
2018타경 53713	1	목포시 용당로331번길88, 209동 3층 302호 [용해동,호반리젠시빌스위트] 84.9410㎡	아파트	89,000,000 89,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8타경 7703	2	영암군 군서면 동호리 115 446㎡[갑구2번25분의5박옥희지분전부.대지일부는전,도로로이용중] 동소 115 33.6㎡ 부속건물 창고15㎡[현황소재불명][갑구1번25분의5박옥희지분전부]제시외 창고 등 11.494㎡	대 단독주택	9,845,210 9,845,21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대지및건물의경계불명,차량적재함은매각대상아님,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대지/임야/전답]					
2018타경 7703	1	영암군 군서면 동호리 13-5 553㎡[갑구2번25분의5박옥희지분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전	1,614,760 1,614,76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영암군 군서면 성양리 483-2 2042㎡[갑구3번25분의5박옥희지분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답	5,880,960 5,880,96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 53348	1	영암군 시종면 신연리 278 869㎡	전	8,342,400 8,342,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379 2539㎡[갑구6번468분의178문병옥지분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답	8,787,680 8,787,68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 53454	1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1485-2 1492.2㎡[타지번과일단지로하여답으로이용중]	답	13,728,240 13,728,24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8타경 6502	1	목포시 옥암동 1199-2 1층324.1㎡ 2~3층각325.4㎡ 4층223.1㎡ 제시외 차양 12.35㎡	근린시설	1,597,945,200 1,597,945,2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1199-2 555.7㎡	대		
2018타경 53621	1	목포시 양을로33번길12, 1층 상가9호 [산정동,종원시장아파트] 40.98㎡	근린시설	37,000,000 37,000,000	공부상'상가'이나 현황은'주택'임
[기타]					
2018타경 7567	1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 970 2391㎡	공장용지	2,590,002,060 2,590,002,060	일괄매각.감정인은매각물건명세서별지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기호11번칠러[냉동기]장치배관등분리되어정상작동여부확인할수없으며,기호13번삼중벽[적층관]하수관일부개조된것으로판단
		영암군 학산면 왕인로 179 1320㎡ 부속건물 사무소 180㎡ 제시외 창고 등 151.8㎡,기계기구목록참조	공장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140-5 1862㎡	공장용지		
		동소 140-7 146㎡	공장용지		
		동소 140-4 4572㎡	공장용지		
		동소 140-4 998㎡ 부속건물 사무실180.44㎡ 제시외 출입구 2.7㎡[물건번호1:제시외건물포함.140-4,140-1지상에매각제외타인소유창고소재함]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9. 4. 22.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9. 4. 29.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9.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문형준